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3차 교육위원회)
2018. 12. 3. 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0년 9월 학교(가칭 동남1초, 동남1유) 설립 계획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2020년 9월 학교(가칭 동남1초, 동남1유) 설립 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8년 10월 31일

○ 회부일자: 2018년 11월 5일

3. 제안이유

-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학생 배치 등 학생·학부모 교육여건 개선 위한 학교 신설 필요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학교 현황 및 설립규모

학교명 (가칭)	설립 규모		시설 규모		위 치 (개발사업)	개교 예정	비 고
	학급	학생	부지(㎡)	건물(㎡)			
동남1초	초 39 유 4 특수(초) 2 계 45	초 1,323 유 81 계 1,404	14,400	14,109.65	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6-6일원 (청주동남지구 6,064세대)	2020. 9.	
동남1유	유 13 특수(유) 2 계 15	유 255 (급당 만3세 15 만4세 20 만5세 23)	3,500	5,158.93	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2-6일원 (청주동남지구 착공 9,783세대)	2020. 9	

○ 학교 설립 사유

학교명 (가칭)	학교설립 사유
동남1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남택지개발지구 학구내 6,064세대 유입학생 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주시기: 2019. 12. ~ 2020. 8. ○ 2020. 8월까지 약 4,200세대 입주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0. 9월 조기 학교설립 필요 ○ 인근학교 통학여건 불편으로 분산배치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성초: 외곽도로 6차선횡단 안전사고 우려 - 용암초·교동초·상당초: 도보통학 1.6~2.8km 소요 ○ 가칭)동남2초 학교설립 : 동남지구 개발 및 입주현황 추이에 따라 신설('23년 학생배치계획 반영)
동남1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남택지개발지구 총 14,709세대 중 착공세대(9,783세대) 유입 원아 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주시기: 2019. 12. ~ 2021. 3. ○ 2020. 8월까지 동남지구 약 7,800세대 입주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0. 9월 조기 학교설립 필요 ○ 국·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(국정과제, 49-1-1)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전국) 2017년 25% → 2022년 40% - (우리교육청) 2017년 46.2% → 2022년 47.5% ○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희망수요 64.6%('16.조사결과)

5. 검토의견

-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청주시 동남택지지구에는 총 3개의 초등학교 학구로 나누어 지며, 동남1 초등학교의 학구내에는 2020년 8월 까지 6,064세대 중 약 4,200세대의 입주가 확정 되어, 2020년 9월에 초등학교의 조기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.

- 또한, 동남택지지구의 착공세대 9,783세대 중 2020년 8월까지 7,800세대의 입주가 확정 되어 학구가 지정되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도 2020년 9월에 조기 설립이 필요함.
- 동남택지지구 인근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, 용성초등학교는 외곽도로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, 용암초, 교동초, 상당초 등 학교는 동남택지와의 통학거리가 1.6~2.8km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원거리 이동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유입학생들의 인근 학교 배치가 어려움
- 따라서, 동남택지지구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와 안전한 통학 여건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시설 공사기간 다른 신설학교 공사기간에 비해 짧아, 부실공사 및 이를 이유로 개교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